

베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말리부 서퍼 논쟁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Malibu) 해변은 서퍼(surfer)들의 낙원으로 꼽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평일에도 파도와 젊음을 즐기는 서퍼들로 들떠있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가능한 한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마땅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말리부 서퍼를 보고는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1) 왜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2) 왜 베짱이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무상급식 논쟁을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나 질문 2)에 대한 대답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대답해 보려고 한다.

베짱이가 종일 노래를 불러야 개미가 더 행복하다

실질 자유지상주의(real libertarian)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판 빠레이스(van Parijs)는 롤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는 『모두를 위한 실질 자유(Real Freedom for All)』라는 책을 쓰면서 표지에 말리부 서퍼의 그림을 실었다. 그리고 그는 사고실험을 통해서 말리부 서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서술하자.

개미와 베짱이—판 빠레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미친 자와 게으른 자(Crazy and Lazy)—가 있다고 가정하자. 개미는 일에 미친 자이고 베짱이는 노래에 미친 자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 똑같은 크기의 땅을 상속받았다. 개미는 자기 땅에서 하루종일 일을 해서 4 데나리온(이 글에서는 하루분의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을 1 데나리온이라고 가정하자)을 벌지만 더 벌지 못해서 불행하다. 베짱이는 1 데나리온만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노래를 부르지만 종일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불행하다. 개미가 꾀를 하나 내어 베짱이에게 제안한다. 너의 땅을 나한테 빌려주면 1 데나리온을 줄게. 베짱이는 기꺼이 합의한다. 개미는 이제 8 데나리온을 벌어서 베짱이에게 1 데나리온을 주고 7 데나리온을 가지니까 더 행복하다. 베짱이는 이제 하루종일 노래를 부르면서도 1 데나리온이 생기니까 더 행복하다. 이와 같이 베짱이에게 1 데나리온(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개미와 베짱이가 모두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베짱이가 개미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짱이와 개미가 공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본소득의 근거이다.

베짱이의 것은 베짱이에게로

물론 앞의 이야기는 베짱이와 개미가 땅을 골고루 가졌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베짱이에게 땅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땅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것이므로

로, 모두가 똑같이 갈라쫓는 것이 정당하다. 특정한 사람만 땅을 가진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베짱이가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약 4,000조 원이다.(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2013년 5월 30일). 공시지가는 실제 가치의 60% 정도이다. 결국 우리나라 토지의 총 가치는 6,600조원이 되고, 1인당 1.3억원이 된다. 1년에 3%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달에 33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베짱이라고 할지라도 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토지뿐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공유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의 90%는 공유재인 지식을 활용한 대가라고 추정하였다. 경제활동에 대하여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90%가 아니라 70%의 세율로 과세하여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7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자그마치 1인당 월 117만원의 기본소득이 확보된다.

토지와 지식 이외에도 베짱이는 외에도 물과 공기 바람 등 환경과 자원의 소유자이다. 베짱이의 것을 베짱이에게 돌려주는 원칙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1년에 며칠은 말리부에서 서핑을 즐기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베짱이를 다시 개미로 만드는 기본소득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베짱이를 찾기 매우 힘들다. 우리 통계에서는 취업자를 제외한 비취업자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직장에서 해고된 뒤 동네 가게를 열었지만 장사가 안 되어 한숨을 쉬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자는 취업자이므로 베짱이가 아니다. 직업이 없어서 여기저기 서류를 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업자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베짱이가 아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노인과 아동은 베짱이라고 볼 수 없다. 전업주부도 베짱이가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루종일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 홍대 앞에서 밤거리를 헤매는 고등학생이나, 게임방에서 밤을 세우는 대학생도 베짱이가 아니다. 노랑진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취업재수생도 베짱이가 아니다. 도데체 누가 베짱이인가?

힘들게 찾아보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 가지 부류의 베짱이가 발견된다.

첫째는 진짜 부자 베짱이. 예를 들어 재벌의 자녀로서 놀고 먹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베짱이는 기본소득을 주어서 베짱이로 바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본소득을 안 주어도 이미 베짱이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의 자녀들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가 되려고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영권을 물려받으려고 탈세를 하고 경영 수업을 쌓는다고 동네 가게들을 다 죽이고 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재벌 자녀 개미 금지법’을 만들어서 개미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편이 낫아 보인다.

둘째는 노숙자이다. 이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희망을 버린 채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노숙자를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희망을 되찾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노숙자 베짱이를 없애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의 결과는 희망을 잃은 노숙자 베짱들이은 약간의 소득만 지원하더라도 개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확인해 주고 있다.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인지를 알고 있었다. 1년 뒤 조사해 보니 13명 중 11명이 더이상 거리를 배회하지 않았다. 대부분 장기 숙박업소(호스텔)나 노숙자 쉼터에서 살고 있었다. 다들 뭔가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서울신문 2014년 1월 2일)

셋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선별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이들은 일을 하면 선별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짖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교수가 친구 사업가가 제안하는 좋은 알바 자리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소개하니 학생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알바를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손해라는 것이었다. 선별복지 제도가 멸절된 재미를 베짖이를 만들고 있다. 기본소득은 전혀 다르다. 일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선별복지 하에서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둘째의 베짖이처럼 인생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셋째의 베짖이처럼 선별복지 때문에 제도적으로 베짖이가 된 사람을 다시 재미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장점이다.

알고 보면 베짖이가 아니라 재미이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다.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다보면 월급도 안 받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우연히 교육감 선거를 도우다 보니 좋은 정치인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돈도 없지만 선거법 등의 이유로 월급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집안이 부자이거나 배우자가 부자일까? 꼭 그렇지도 않다. 아마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니까 집안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정치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베짖이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재미이다. 돈을 안 받아도 일하는 수퍼 일개미이다.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식구들을 위해서 토스트를 만들어 놓고, 낮에는 단체 일을 하거나 연대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강연을 하거나 후배를 격려해주고, 집에 오면 밀린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있을 기자회견문을 쓴다. 별초나 간병 등 집안 행사가 생기면 노는 놈이니까 네가 맡아서 하라고 집안 어른들의 명령이 떨어진다. 이들은 때때로 과로사 한다. 기본소득과 알바연대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문석 동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강연에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회의자료를 준비하다 딸 아이를 재우면서 잠시 조는 사이에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풍요로워질까? 권문석 동지 노체 때 동지의 어린 딸에게는 반드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를 물려주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하였다.

베짖이들이 인공지능을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노동(임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베짖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절반의 노동은 임노동이 아니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각해 보라. 가사노동을 임노동으로 충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는가? 앞서 예로 든 수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정치 활동가들의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가 없이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기록해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주부 베짖이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 베짖이들은 말리부 해변에서 서핑을 할 돈이 없다. 대신 인터넷에서 서핑을 한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터넷 서핑 도구는 구글이다. 구글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만든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 그전까지 검색엔진은 가능한 한 많은 사이트를 찾아가서 사이트 내용을 분류하고 판단하여 점수를 매겼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기가 매긴 점수 순서대로 사이트들을 보여주었다. 래리 페이지는 이것과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선택하였다.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오래 머무는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매기자. 이렇게 점수 매기는 방법을 페이지랭크(Pagerank)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책”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책”이라는 검색어를 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오래 보는 사이트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글 검색엔진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비결이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인터넷 서핑을 하는 벼짱이들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만든 벼짱이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버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인터넷 서핑을 하는 벼짱이들에게 약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마땅하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본소득, 이름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키위 벼짱이를 못 살게 만드는 한인 개미

인구 30만명의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Dunedin)이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다. 뉴질랜드에 온 한인들은 모두 비슷한 심리적 경험을 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인간들에게 너무 시달렸어. 깨끗한 녹색 나라에서 살고 싶어.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 마음껏 뛰놀게 해야지. 한인들은 처음에는 1년 동안 골프에 미친다고 한다. 학생이면 1년 골프장 이용료가 5만원이다. 한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친다. 한국에서는 1번 치는 데 30만원씩 드니까 칠 때마다 30만원씩 이득이 되는 거야. 너 오늘 골프 쳐서 얼마 벌었니? 응, 새벽, 오전, 오후 3번 돌았으니 90만원 벌었지. 이민 왔으니 본전 뽑아야지. 1년이면 자그마치 1억원 이상 돈을 버는 거야.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골프를 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 너무 심심해.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이야. 반대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지. 이제 한인들은 개미로서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분식점 가게를 연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닫는다. 왜 6시에 열지? 옆집 한국 가게가 7시에 여니까. 아침에 손님은 거의 없다. 해만 지면 사람들은 다 집에 간다. 투자 자금도 못 건지기 십상이다. 그리고 분개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는데 왜 돈을 못 벌지? 뉴질랜드는 불공평한 나라야. 애들 대학만 가면 한국으로 다시 가야지. 역시 개미가 살기는 한국이 최고야.

한인 개미들이 분식점을 열고 닫는 동안 더니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분식점이 조금 잘 되면 엄청난 권리금을 썩워서 떠넘긴다. 권리금을 노리고 너도 나도 가게를 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키위(뉴질랜드인을 키위라고 부른다)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올라서 망하게 된다. 아니면 한인 가게와의 가격 경쟁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동안 한인도 망하고, 키위도 망하고, 땅 부자만 잠시 이득을 보게 된다. 벼짱이들이 행복하게 살던 도시에 한인 개미들이 와서 개미와 벼짱이 모두 불행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벼짱이 나라에 갔으면 벼짱이로 살았어야 했다.

벼짱이를 찬양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핀 공장을 방문해서 분업을 통해서 수백 배 이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보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철학의 창시자로서 『수학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을 쓴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핀 공장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벼짱이를 찬양하였다. 기술혁신으로 핀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성이 2배로 상승하였는데, 여전히 8시간 노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너무 많은 핀이 생산될 것이다. 핀 수요가 그대로라면 절반의 기업이 도산할 것이고, 절반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생산성의 증가로 모두

가 불행해진다. 대안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다.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열쇠는 선이고 자물쇠는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생산은 너무 중시하고 소비는 너무 경시한다.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이 반드시 불성실한 일에 쓰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하루 4시간 노동으로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시간은 스스로 알아서 적절한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루에 절반만 노동하는 베짖이들은 쓸데 없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잉생산을 막고, 귀중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되며,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일에 나머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쓸데 없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잉생산을 막는 일은 석유 정점이 지나는 등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적 위기가 심해지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베짖이가 되어야 한다. 베짖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일자리가 현재 속도로 없어지면 베짖이는 선택도 의무도 아니고 필연이 된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을까? 흥미로운 예들을 소개하자. 2013년 현재 사람 5,000명당 한 대의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약사: UCSF 병원 두 곳에서 로봇트가 약을 짓고(의사의 지시대로 포장하고) 있다. 법률가: 캘리포니아주 한 법률회사(Blackstone Discovery)에서는 컴퓨터가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운전자: 구글 무인 자동차 7대가 이미 1,000마일 이상 달렸다. 우주인: 인간을 보조하는 로봇트가 우주선에서 일하고 있다. 사무원: 현금인출기(ATM) 은행원. 군인: MAARS 사는 이라크에 로봇트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보모(babysitter): 일본의 이온(Aeon) 사는 로봇트 보모를 팔고 있다. 구조대원: 일본 토코후(Tokohu) 대학에서는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로봇트 뱀을 만들었다. 스포츠기자: 폭스(Fox Cable)의 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가 스포츠 기사를 쓰고 있다. (<http://www.nbcnews.com/id/42183592#.UwEMrvvPfHg>)

흡혈박쥐에게서 기본소득을 배운다

동물학자 제럴드 윌킨슨(Gerald Wilkinson)은 남미의 코스타리카에서 흡혈박쥐(vampire bat)를 연구했다. 흡혈박쥐는 밤이 되면 짐승 등을 찾아가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해도 상대에게 들켜 피를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주 배를 곯는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박쥐는 60시간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도 그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잉여분은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윌킨슨은 실험 대상 박쥐들에게 계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피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박쥐에게 다른 박쥐가 피를 나눠 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박쥐들은 자신을 도왔던 상대방에게 기꺼이 피를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윌킨슨은 피를 주는 박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받는 박쥐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부자가 체중의 5%에 해당하는 피를 다른 개체에게 주면 단 2시간 굶는 정도의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나 수혜자는 약 20시간 정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는 비용에 비하여 받는 편익은 10배의 가치가 있다.

흡혈박쥐는 굶주린 박쥐를 베짖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피를 나누어준다. 롤스의 정의론을 읽어서 무지의 장막 뒤에 서 보거나 어려운 보험이론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자기도 언젠가 굶주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굶주렸을 때 다른 박쥐가 피를 나누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피를 나누어 준다. 혜택을 입은 박쥐는 은혜를 꼭 갚는다. 기본소득은 자기가 굶주릴 때 다른 박쥐가 피를 나누어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먼저 피를 나누어주는 흡혈박쥐의 이타적 행동을 본받자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베짖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준다

하늘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지급될까? 예수의 비유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아홉 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다섯 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절-16절)

해석하기 어려운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베짖이와 다름없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unto this last)” 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왜 기본소득을 지급할까? 예수는 ‘주인의 후한 뜻’ 이외에는 설명하지 않는다. 마치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아보라는 것 같다. 어쩌면 베짖이에게도 한 데나리온(정치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노동력의 가치라고 부른다)을 주어야 내일 필요한 개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흠혈박쥐처럼 불행한 베짖이에게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물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하늘 나라에서는 베짖이도 한 데나리온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을 준다고 다 하늘나라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하늘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무엇이 개미의 노동인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기본소득

노동은 자신의 지식과 근육을 사용하여 대상을 바꾸어 목적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노동, 예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어서 씹는 행위는 사회적 의미가 없다. 사회적으로는 남이 입을 옷을 만들거나, 함께 이용할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남을 위해 하는 노동이 중요하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사적 노동은 베짖이의 노동이고, 사회적 노동은 개미의 노동이다. 그런데 어떤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남을 위해 옷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남이 싫어한다면 그 노동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으로 간주되는 과정을 사적 노동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불러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하는 모든 노동을 개미의 노동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은 베짖이의 노동으로 인정된다. 주부의 가사노동, 활동가의 봉사노동,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예술가의 창작 노동은 모두 베짖이의 노동으로 간주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노동들이 베짖이의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과거 소비에트에서의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어떤 것이 베짖이 노동이고 어떤 것이 개미의 노동인지

국가가 결정하였다. 국가가 잘 관리될 때에는 자본주의 못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국가가 부패하면서 쓸데 없는 노동이 개미의 노동으로 인정되거나 쓸모 있는 노동이 벼지이의 노동으로 인정되었다. 결국 사람들의 창의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체제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다시 러셀(Bertrand Russell)을 인용하자. 그는 『자유로 가는 길』(Bertrand Russell, 1918)에서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을 결합시킨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장하였다. 정통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이 있고, 아나키즘은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러셀의 새로운 경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 즉 “방랑자의 품삯(vagabond's wage)”이 제공된다. 그 이상의 소득은 사회가 인정하는 노동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유와 정의를 함께 추구할 수 있고, 정통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들을 동시에 피할 수 있다. 소비에트 국가사회주의와 동구의 시장사회주의가 붕괴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러셀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국가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 한계와 위험을 인식하고 기본소득 사회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해 보자.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생필품에 해당되는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런 감시 없이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노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으려면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노동을 시장이 사회적으로 인정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모든 노동을 국가가 사회적으로 인정한다. 기본소득 사회에서는 기본소득만큼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 없이 무조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한다.

<참고사이트>

녹색평론사: <http://www.greenreview.co.kr/>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

충남발전연구원: <http://www.cdi.re.kr/>